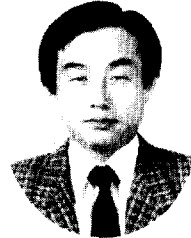


특집을 내면서



한 민 구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

대한전기학회 편집위원회는 1989년 12월호 특집을 “지난 80년대를 뒤돌아 보면서”라는 이색적인 제목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집들이 전망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 과거를 정리하여 보는 데에는 저희들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정에서 '80년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의 일반적인 기술 이전 또는 종속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제품설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창조적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90년대에는 기술 입국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공학분야는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종래의 협의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전력, 전자, 제어, 통신 및 컴퓨터 등 여러 분야들이 결합된 기술의 종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인들이 지난 80년대에 이룩한 결실들을 살펴 보고 90년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회의끝에 각 편집위원들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국산화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제품개발 사례 및 기술축적 경험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접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생생한 기록을 보존해야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필자선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4M DRAM, TDX, NMR의료가 등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지 못하게 된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1999년 12월호에는 더욱 많은 원고거리가 생길줄 믿으면서 다시한번 필자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89年 12月